



금 철, 백은영 선교사 대만 선교편지 57

"All things are under His control"

찬미예수!

대만 금철 백은영 선교사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은 4월 중순 한국에 돌아온 후에 진료와 치료에 집중하느라 교회방문이나 만남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을 주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의 현황과 향후 일정을 함께 나누니 다.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① 대만 이야기 - 팬데믹

대만이 그동안 방역을 잘해서 확진자가 거의 없었는데 지난 4월부터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하더니 7월 3일 현재는 32,567명 확진, 88명 사망입니다. 그래도 6월 60,000명대에서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대만은 여전히 PCR 검사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시 7일 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코로나백신 접종률은 91%이며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만도 이제 의무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고 4일은 개인이 조심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지되었던 비자업무도 조만간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이 지난 시간 코로나 청정국이었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혼돈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② 타이쑹 광야교회(基督教台中曠野教會) 소식

타이쑹 광야교회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일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다만 2주 전 왕 전도사님 가족이 확진되고, 장 전도사님 본인과 모친이 확진되어서 2주간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7월 3일부터 다시 주일예배를 회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를 지속하며 저희 가정의 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 매일 묵상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저희들의 근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곧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고 공동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③ 가정이야기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내 한빛이 한국에서 대학교 첫 학기를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내 나라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생활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국음식도 좋고 선후배와 친구들과 사이에서 빨리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빛은 7월 4일

부터 선교사자녀 여름캠프(Komked)에서 중3학생들을 맡아서 2주간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장남 은찬 대만에서 직장생활 1년이 되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삼성건설의 직원으로 대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신앙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본인의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하림은 타이베이교육대학(臺北教育大學) 상담심리학과에 지원해서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입국을 위한 비자수속을 하고 9월부터 타이베이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금 철 백은영 선교사 부부는 지난 4월 이후 두 달 남짓 한국에서 각종 검사와 진료 그리고 수술 전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남대전 교회와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 장로님의 도움으로 충남대병원에서 갑상선에 대한 여러 검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수술이 필요한 갑상선암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강남 삼성병원에서 7월 13일(수) 수술 예정입니다. 종양의 크기는 2.2~2.4cm 정도입니다. 수술은 좌측 갑상선만 처리하는 것인데, 혹시 당일 확인 후 양쪽 다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종양이 기관지 쪽으로 근접해있어서 만약 기관지에 전이가 있다면 수술이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한의사이신 최 형제님의 도움으로 남양주에서 수술을 앞두고 한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④ 감사와 기도제목

- * 연약함 중에도 주님을 의뢰하고 평강 주심 감사
- * 자녀들의 생명과 진로에 베푸신 은총을 감사
- * 광야교회, 활천교회, 아가페교회의 동역을 감사
- * 주님 안에서 사랑의 격려와 적절한 치료를 감사

1. 대만 섬 2,300만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2. 타이쑹광야교회(台中曠野教會)와 활천교회 왕명양(王明陽), 장시오우평(張秀鳳) 전도사 내외에게 성령충만 은혜충만 주옵소서
3. 한국 양가 노모들의 신앙과 소망이 더욱 깊어지도록
4. 7월4일-17일 선교사자녀 여름캠프(콤케드)를 위해서
5. 7월13일(수) 금철 선교사의 수술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2022년 7월 4일

한국 남양주에서

금 철 백은영(은찬 하림 한빛) 선교사 드림